

# 月刊 夜行

## 월간 야행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유치를  
기원합니다

문화재 야행

202307

발행 | 인천중구(야행홈페이지 www.culturenight.co.kr) 문의 | 카카오톡 채널 “인천개항장문화재야행”, TEL. 02)6961-5435 SNS | /INCHEON\_CULTURE /culturefestival

## 2023 인천개항장 문화재야행!

# 夜行 History



공식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 2016년

인천개항장 문화재 야행은 야간에 침체되던 개항장 문화 지구의 상황을 극복하고 특색있는 인천대표 문화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관광공사가 손을 잡고 “2016년 인천개항장 밤마실”로 시작되었다. 총 방문객 5만여 명, 총 소비지출액 약 12억 2천만 원이라는 성과와 함께 지역 상가에 방문객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지역활성화에 기여하는 행사로 평가받았다.

### 2017년

이듬해인 2017년에는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게 되어 비로소 “인천개항장 문화재 야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지역 문화시설 및 지역 상인, 주민들의 참여로 문화마실, 저잣거리 등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고, 총 방문객 76,226명, 총 소비지출액 약 17억 4천만 원의 성과를 기록했다. 이를 토대로 문화재청이 선정하는 2017년 우수야행에 선정되었다.

### 2018년

인천개항장 문화재 야행이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게 된 2018년은 특히 인천 관내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게 된 해이기도 하다. 이에 힘입어 프로그램의 상설화 및 고도화가 진행되었고, 특히 개항장의 역사 및 문화재들과 연계된 체험프로그램들이 개발되었다. 총 방문객 86,231명, 총 소비지출액 약 20억 1천만원의 성과를 기록했다.

### 2019년

세 번의 행사를 통해 지역상가, 지역 주민들의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던 2019년 야행은 6월과 9월, 2회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그동안의 성과들을 토대로 차이나타운~개항장~신포시장을 연결하는 개항장 관광벨트가 조성되었으며, 총 방문객 154,468명으로 전년 대비 거의 2배의 관람객이 방문하였고, 총 소비지출액은 22억 원이 넘었다.

### 2020년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19 시기에 개최되었다. 비록 코로나19 시기에 개최되었지만, 3개의 주요 진출입로에서 방역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철저하게 코로나19

에 대비하였고, 오픈스튜디오를 마련하여 “랜선 야행”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동시에 야행을 진행하였다. 총 3개의 채널을 통해 실시한 랜선야행의 총 조회수는 1만 7천7백회를 기록하였다.

### 2021년

코로나19가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던 2021년 야행도, 철저한 방역관리를 중점으로 삼았으며, 이에 세계축제협회(IFEA WORLD KOREA)에서 주관하는 피너클어워드(Pinnacle Awards)의 “방역 및 안전” 부문 은상을 수상하였다. 이 외에도 문화재 프로젝트 맵핑의 독특한 구성으로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받았으며, 코로나19의 시기에도 총 방문객 22,509명이 야행을 방문했다.

### 2022년

작년 실시되었던 2022 인천개항장 문화재 야행은 위드코로나 기간에 2회에 걸쳐 개최되었다. 특히 2022년 행사는 최초로 문화재 드론 라이트쇼를 시도하였고, 첨단기술과 문화유산을 접목한 시도로 평가받았다. 총 방문객 100,235명, 총 소비지출액 약 14억 5천만 원을 기록하였던 2022년 야행은, 2021년 야행에 이어 2회 연속 문화재청의 “우수야행”으로 선정되었으며, 피너클어워드의 “야간축제부문” 은상, “머천다이즈 부문” 동상을 수상하였다.

올해 8년째 맞이하는 2023년 인천개항장 문화재 야행은 8월, 10월 개최될 예정이며, 특히 올해 야행은 ‘주민 주도형’ 문화재 야행 추진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가는 야행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안전한 야행을 위해 전년 대비 2배의 안전예산 투입은 물론이고, 중부경찰서·중부소방서와의 협력도 진행 중이다.

### 2016

인천개항장 밤마실  
9. 23.(금) ~ 10.15.(토)

### 2017

인천개항장 밤마실  
5. 27.(토) ~ 6. 24.(토)  
\*2017 문화재청 우수야행 선정

### 2018

인천개항장 문화재 야행  
9. 8.(토) ~ 9.(일) / 10. 6.(토) ~ 7.(일)

### 2019

인천개항장 문화재 야행  
6. 15.(토) ~ 16.(일) / 9. 7.(토) ~ 8.(일)

### 2020

인천개항장 문화재 야행  
11. 14.(토) ~ 15.(일)  
11. 21.(토) ~ (랜선야행)  
\*2020 문화재청 국비 전국 지자체 최대금액 지원

### 2021

인천개항장 문화재 야행  
11. 5.(금) ~ 7.(일)  
\*2021 문화재청 우수야행 선정  
\*피너클 어워드 ‘방역 및 안전’ 부문 은상 수상

### 2022

인천개항장 문화재 야행  
9. 24.(토) ~ 25.(일)  
10. 15.(토) ~ 16.(일)  
\*2022 문화재청 2년 연속 우수야행 선정  
\*피너클 어워드 수상 : 야간형축제 ‘은상’, 머천다이즈 ‘동상’

## 2023

## 인천개항장 문화재 야행



### 일시

8. 26.(토) ~ 8. 27.(일)  
10.21.(토) ~ 10.22.(일)

### 장소

인천 개항장 문화지구 일원

주최 문화재청, 인천광역시 중구  
주관 인천관광공사  
후원 인천광역시



01 문화재 야행 히스토리  
2016-2023 문화재야행

02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  
인천 개항장 문화재 야행

03 문화재 야행 소식  
야행 마니아 아카데미  
1기 운영계획

04 문화재 야행 인터뷰  
야행을 만드는 사람들  
# 중구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 인천 개항장 문화재 야행

- 문화재가 주는 독특한 분위기와 시선, 도시의 밤을 깨우는 야간 관광특화 콘텐츠
- 시간과 역사가 담긴 근대 문화의 역사적 의미를 극대화하고 전하는 개항장의 유니크한 콘텐츠
- 지역 주민과 상점 주인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특별한 것들”의 향연

## 야경(夜景)



문화재 빛으로 미래를 밝히다  
웰컴게이트, After 8ight 개항장 문화재  
고보 맵핑, 안녕 네온

## 야로(夜路)



1883 개항의 밤거리를 누비다  
개항 패션 워크, 사색의 거리,  
개항장 에코 프렌즈, 향미단길

## 야설(野說)



개항장 이야기를 펼치다  
야행마니아 아카데미, 개항 패션쇼-개항힙  
스타일, 스토리텔링 도보탐방

## 야사(野史)



개항장, 모던타임  
개항장 변천사 프로젝트 “The Story”,  
최강야구 <한용단>, 오리진인천 모던인천,  
개항장 타운

## 야화(夜畵)



별별 야행, 함께 보요  
문화재 야간 개방 “문화재는 살아있다.”,  
무형문화재 민간 박물관 전시

## 야시(夜市)



눈으로 즐기는 개항장의 멋  
개항장 탕진잼 폴리마켓, 로컬 폴리마켓

## 야식(夜食)



맛보고 즐기는 개항장의 맛  
미식투어-먹어서 세계 속으  
로, 용기내 챌린지-용기  
스테이션, 개항장 먹투어,  
개항장 누들거리

## 야숙(野宿)



개항의 추억을 품은 밤  
개항장 품은 밤, 개항장 웰컴 키트

## 문화재 야행 활동소식

# 2023 인천개항장 문화재야행 주민 간담회 성료

온·오프라인으로 상인·예술인·숙박업계 한자리에 모여 주민 간담회 개최

지난 7월 17일 ‘2023 인천개항장 문화재야행’에서 주민 참여도를 높이고자 주  
민간담회를 마련, 활성화 방안을 논의 했다.

올해는 ‘인천 개항장 문화재 야행’의 주민 참여도를 더 높이기 위해 지역 상인  
물론, 지역예술인,숙박업계까지 한자리에 초청해 올해 야행 추진 현황을 공유  
하고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신포국제시장, 신포상가연합회,  
차이나타운 등 지역상권에서는 야간 연장 영업 및 자발적인 축제 참여에 적극  
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개항도시와 중구박물관전시관협의회, 신포89회(미술협회), 라이브클럽(흐르는  
물, 버팀라인)등 지역예술인 단체에서는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해 야  
행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데 힘쓰기로 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온·오프  
라인으로 동시에 진행, 부득  
이 참석이 어려운 이들은 유  
튜브 생중계로 참여했다.

주민 간담회는 앞으로 2차  
레 더 열릴 예정이다. 이번  
8월 문화재 야행 이후 간담  
회를 열어 보완점을 논의하고, 10월 야행 이후 사후 간담회를 통해 다음 연도  
행사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 인천개항장 문화재 야행 1기 마니아 아카데미 개설!

인천개항장 문화재 야행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시대 변화의 선두주자 인천을 세계적으로 소개하고 싶다!



**일 정** 총 4회 1일 2시간

07.26.(수) PM 07:00 ~ 09:00

08.02.(수) PM 07:00 ~ 09:00

08.09.(수) PM 07:00 ~ 09:00

08.16.(수) PM 07:00 ~ 09:00

**장 소** 인천 포디움 126 2층  
(인천 중구 신포로 19-8)

**내 용** 1회차 오리엔테이션 및 인천개항장 문화재 야행 소개

2회차 로컬 크리에이터 콘텐츠 기획하기  
“지역을 디자인하다”

3회차 인천개항장 문화재 및 개항장 역사 교육

4회차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방안 및  
개항장 문화재야행 투입준비



2023년 인천개항장 문화재 야행의 시작을 알리는 “야행마니아아카데미 1기”의 첫 수업이 7월 26일 수요일 저녁 7시 포디움126(중구 신포로 19-8)에서 열렸다. 인천지역에 거주하는 20명의 참가자들과 함께 인천관광공사(인천개항장 문화재 야행 주관사) 민준홍 팀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설경호 인천관광공사 과장의 야행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으며, 이어 참가자들은 자기소개와 함께 참여하게 된 동기와 각오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보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더 나아가 인천개항장 문화재 야행을 직접 알리고자 한다는 단단한 포부를 밝힌 참가자들의 눈빛에는, 인천개항장 문화재 야행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기대감으로 가득찼다.

**인천에 태어나 살고 한 가정을 이루며 인천에 터를 잡게 된 2년 차 신혼부부 허재영(35), 김효정(33, 인천 미추홀구)**



“저희 남편은 충청도 청주에서 태어난 충청도 남자로서 저희는 처음 경주 여행에서 만났어요. 우연히 기차여행을 통해 만나 인연이 되어 지금도 함께 여행 및 지역축제를 다니고 있어요. 이번 개항장 야행은 사실 제가 더 관심이 있었고 인천에 대해 남편에게 더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아카데미 교육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훗날 여가 시간을 보

낼 때 ‘그때 우리 함께 야행했었지’하며 추억을 만들려고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라며 김효정씨는 강의 중에도 집중된 모습으로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문화재나 역사에 관심이 많은 편이라 앞으로 거주하고 있는 인천의 역사나 문화재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싶습니다.”라며 남편 허재영씨는 부인과 함께 입을 모아 기대의 응원을 던졌다.

이어 김효정씨는 밝은 표정으로 “저 너무 기대되고 설레입니다. 여기 첫 모임 장소 또한 근대건축물과 카페가 함께하여 인천의 특색있는 장소가 되는 거 같아요. 이번 야행이 MZ 젊은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축제가 되고, 사람들에게 인천 하면 개항장이 떠오르는 소통의 장소가 되었으면 해요. 야행 이후에도 문화재 관람에 영·유아를 포함한 모든 연령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런 배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인천 문화재에 대해 더 알리고 싶습니다.”라며 기대하는 마음과 메시지를 전달했다.

**또 다른 특별한 참가자. 이번 참가자 중 최연소 참가자 14세 중학생 허아림(14) 양과 어머니 옥영미(43, 인천 미추홀구) 모녀.**

“차이나타운을 갔다가 우연히 알게 된 개항장 거리에 반하게 되어 계절이 바뀔 때마다 아이들과 찾으며 낮과 달리 저녁이 되면 적막감이 돌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개항장 야행 행사에 처음 갔을 때 현재와 백여 년 전이라는 과거가 공존하는 어디에서도 만날 수 없는 분위기에 반해 거의 매년 야행 행사에 참여한 것 같습니다. 손을 놓칠세라 두 손을 꼭 잡고 다니던 아이들이 자라서 지금은 멀찍이 걸어가며 여유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침 야행 아카데미를 연다는 소식을 딸아이에게 말했더니 저보다 관심을 보이며 좋아했습니다.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개항장의 역사와 의미에 대해 알 수 있게 되어 기대감이 크고 아카데미 1기로서 좋은 선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며 딸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한 어머니의 마음을 전했다. 최연소로 박수를 받으며 부끄럽게 인사를 했지만 이번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각오는 누구보다 멋졌다. “평소에 개항장을 자주 방문하면서 역사에 관심이 더 많아졌었어요. 아카데미를 모집한다는 소식에 이번 경험으로 개항장의 역사도 배울 수 있고 즐거운 경험이 될 것 같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아카데미와 개항장 야행에 대해 기대가 커요. 또한 처음으로 야행 방문객이 아닌 도우미로 참여하게 되어 많이 설레입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수업받고 즐겁게 개항장 야행에 도우미로써 참여하고 싶어요.”라며 방문에서 끝나지 않고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전했다.

이번 아카데미 1기가 인천개항장 문화재야행에서 어떤 활약을 보여 줄지 기대감과 함께 응원으로 마무리한다.



## INTERVIEW

## 야행을 만드는 사람들

## # 중구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 Q1 인천개항장 문화재 야행에 대해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입니다. 우리 인천 개항장 문화재 야행은 올해로 8년째 개최되는 명실 상부 인천의 가장 대표적인 야간 행사이자, 문화체육 관광부의 한국 관광의 별(2020년)로 선정된 대한민국의 주요 관광자원이기도 합니다.

인천개항장 문화재 야행의 첫 시작은 2016년 인천광역시 가치 재창조 사업의 일환으로 인천중구가 “개항장 밤마실”을 개최하면서부터입니다.

이후, 2017년 야행부터 7년 연속 문화재청 공모에 선정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한참 유행하던 2021년과 2022년 인천개항장 문화재 야행은 “문화가 빛나고, 경제가 숨 쉬다”라는 목표로 씬 없이 진행되었고, 문화재청이 선정하는 “우수 야행에”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인천개항장 문화재 야행이 성장하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개항장의 역사성과 근대문화재, 이를 통해 형성된 개항장 문화지구와 차이나타운 등의 각종 문화 관광자원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요인도 있지만, 역시 지역주민들과 인천광역시민들의 참여와 호응이 무엇보다 컸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 Q2 그동안 개최된 인천개항장 문화재 야행의 성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7년간의 인천개항장 문화재 야행이 남긴 가장 큰 효과가 있다면 바로 “인천개항장”의 존재와 가치를 인천시민과 전국에 알렸다는 것입니다. 인천개항장의 근대문화재와 문화시설들이 일깨워 주는 개항의 역사뿐 아니라, 인천개항장에 인천의 역사성이 쌓여 있음을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천개항장 문화재 야행을 개최하면서 중구가 야간 경관조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개항장 곳곳에 조명 설치를 상설화하였고, 이러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야간에도 안전하고 아름다운 개항장의 모습이 점차 발전·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과 인프라의 변화를 통해 개항장과 인근의 차이나타운, 신포시장, 인천 아트플랫폼을 찾는 관광객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사람이 거의 없던 개항장 일원에 젊은 커플들뿐 아니라 가족단위의 관광객들이 꾸준히 찾고 있음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3 이번 야행이 여덟 번째를 맞이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동안의 야행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매년 야행에서 볼 수 있는 8야의 구성은 문화재청이 요구하는 기본적인 틀입니다. 올해 인천개항장 문화재 야행 역시 8야라는 구조를 지키면서 야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야행에서 특별히 주목할 것은 바로 “경험과 지식이 쌓이는 야행”입니다. 그동안의 야행을 통해 개항장의 존재와 가치를 알렸다면, 올해는 야행을 개최하는 사람과 참여하는 사람들의 경험과 지식이 개개인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경험과 지식이 쌓이는 야행의 가장 큰 방향은 바로 지역주민과 인천시민의 참여입니다. 140인 만세운동, 패션쇼 등 인천시민들의 참여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야행의 프로그램 운영을 함께할 “시민 야행 마니아” 선정을 위한 “야행 마니아 아카데미”를 개설하고 성황리에 첫 수업을 마쳤습니다.

지금 읽고 계시는 야행의 특별한 신문 “월간 야행”을 통해서 개항장의 근대문화재를 소개하고 개항장 문화지구 이야기를 담고 개항도시에서 진행되는 “야행 인문학” 강의를 통해 개항장 일대문화재를 거닐며 인천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인천개항장 문화재 야행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에 존재가치를 인식하지 못했던 문화재를 향유하는 것에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인천 부청사로 쓰였던 인천 중구청 본관이 바로 이번 개막식 무대의 주인공입니다. 기존 웅장한 무대를 만들던 방식을 지양하고, 개막식 무대 전경이 바로 문화재인 인천중구청이 될 것입니다. 올해 역점을 두고 있는 LED미디어쇼 역시 인천 중구청 본관을 통해 즐기실 수 있습니다.

## Q4 8월 1차 야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야행에 오시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구민 여러분, 인천시민 그리고 관광객 여러분, 올해 야행은 1차로 8월 26일과 27일 이틀간 진행됩니다. 한여름밤의 설레는 주말야행을 인천개항장으로 선택하셔서 야행을 즐겨주십시오. 중요한 한 가지, 인천개항장 문화재 야행은 “기후변화” 대응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대중교통으로 개항장을 방문해 주십시오. 대중교통을 통해 개항장으로 오시는 분들에게는 특별한 선물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8월 26일과 27일, 인천개항장에서 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항 에코 프렌즈 (대중교통 이벤트)의 선물은 준비된 수량에 한해서 증정될 예정입니다.

## 7월의 야행소식

## 140인 플래시몹 참가자 모집

모집기간	8월 4일(금) ~ 8월 15일(화)
선발	8월 16일 개별 연락 ※ 참가자 선정기준 : 선착순 마감
모집인원	총 280명 / 1일 140명
참가일정	8월 26일(토) ~ 27일(일)
집결일정	pm06:30 / 인천 중구청 옆 종합 안내소 ※ 의복환복시간 : pm6:30~7:00
행사시간	pm07:30 ※ 현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행사일시	2023. 8. 26(토)~ 8. 27(일) / 10. 21(토)~10. 22(일)
행사장소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일원



접수하기

## 개항기 패션쇼 시민참가자 모집

모집기간	8월 7일(월) ~ 8월 20일(일)
선발	8월 21일(월) 개별 연락 ※ 선정기준 : 인천 중구 거주자 우선선발, 인천·경기도 순으로 선정, 가족단위 우선, 외국인 참여 가능
모집인원	총 100명 (8월 26일 50명 / 27일 50명)
참가일정	8월 26일(토) / 8월 27일(일)
집결시간	pm05:00 / 인천 중구청 옆 종합안내소 ※ 의복환복 시간 : pm05:00 ~ 06:00 / 참가자 확인 후 의상 환복
행사시간	pm07:00 ~ 07:30 (예정) ※ 현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행사장소	중구청 앞 무대 ~ 아트 플랫폼



접수하기

야속 ‘개항장 문화재 야행 숙박 패키지’ 프로모션 출시 소개

## 하버파크 호텔 인천개항장 문화재 야행 패키지

투숙기간	2023년 8월 26일(토) ~ 27일(일) / 10월 21일(토) ~ 22일(일) ※ 객실 구성 및 이용요금은 하버파크 호텔 누리집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상품구성	객실(2인실) + 2인 조식 + 13:00 레이트 체크인아웃 ※ 취소정책 - 도착일로부터 2일전까지 취소 또는 변경시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1일 전 : 1박 요금의 50% / 당일 노쇼 1박 요금 ※ 인증샷 이벤트 : 인천개항장 문화재 야행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시면 4층 레스토랑과 1층 개항카페에서 할인이 적용됩니다. - 4층 더하버레스토랑 런치뷔페 이용 시 이용 금액 15% 할인 - 1층 개항카페 드링크 메뉴 20% 할인

## 인천개항장 문화재야행 공식 홈페이지 리뉴얼 오픈

공식 홈페이지 주소 : <http://www.culturenight.co.kr>  
※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와 SNS( [f](#) [blog](#) [yt](#) )를 참고해 주세요

## 인천개항장 문화재야행 카카오톡 채널 개설

카카오톡 검색창에 [인천개항장문화재야행](#) 을 검색하세요.